

#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 쓰기 영역  
‘보고서 쓰기’의 교재화를 중심으로—

김경주\*

## <차 례>

1. 들어가며
2.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
3. ‘보고서 쓰기’에 나타난 쓰기 교육 내용
4. 나오며

## I. 들어가며

교육과정(教育課程)은 일정한 프로그램 아래 교육의 전(全)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습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학습하기에 필요한 연한(年限)과 연한 내에서의 시간 배당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 계획 또는 실천을 가리킨다(국어교육학 사전, 1999 : 81). 교육 목표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교육 실제화의 구심점이다.

우리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 이론과 실제의 가교 역할을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연구와 이론 도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교육과정이 교육 연구와 이론 도출을 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수립과 실행은 교육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론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시도와 그 시도의 결과로서 예측했던 발전 가능성은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교육 과정의 수립과 실행은 교육 과정이 실제 교육 실현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과학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교육과정이 모색되어야 한다면 이 역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교육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가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체제는 그것이 실행되는 순간부터 분석의 대상이 된다.<sup>1)</sup> 그러나 하나의 교육 과정이 실행되어 그 실행의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12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학습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12년 혹은 한 단위의 학교급에서 운영되어 실제 교육과정 실행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만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00년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논의와 분석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선부르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2004년부터 교육 과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2005년에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방안이 2006년에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제7차 교육과정 수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또 한 주기의 교육과정이 한 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역시 잠재적이고 누적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7차 교육과정의 제공

1)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1997년에 개정되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중학교는 2001년,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이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국어교육학계의 경우 2000년(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0)부터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2004년에는 ‘국어과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이인제 외, 2004)’, 2005년에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이인제 외, 2005)’가, 2006년에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이재기 외, 2006)가 나온다.

한 학습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도 미지수이다.<sup>2)</sup>

이 연구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쓰기 영역의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정하게 되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학습 경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교재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 다시 말해 과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특히 쓰기 교육과정의 실현은 이 도구로 어떤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적절하게 선정된 학습 경험은 쓰기 교수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교수 학습 과정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학습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이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이 실제 쓰기 교수 학습 과정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쓰기 영역의 내용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고는 하지만 내용 체계나 성취 기준의 제시 방식 등의 면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매우 다르다. 따라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이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그에 기인한 개정의 중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개정 작업 과정에서 발표

2) 이런 점에서 2000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이니 이들에게 제공된 제7차 교육과정의 경험의 효과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체계적인 종단적 연구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필수 요소임을 생각할 수 있다.

한 여러 연구 논문들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개정 교육과정 수립 주체의 논의<sup>3)</sup>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수준별 교육의 변화, 언어 환경의 변화, 국어 교육에 대한 각계의 요구’로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 3~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준별 교육의 변화’는 국가 수준의 수준별 교육이 학교, 교사 수준의 ‘수준별 수업’으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지만 국가 수준의 수준별 교육 내용 규정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 유형의 단순성 등에 대해 다양한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학교 및 교사 수준의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준별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수준별 교육의 변화를 국어과 교육 내용의 선정·배열,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 환경의 변화’는 현대 한국 사회가 정보화 다매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언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이런 다양한 매체 활용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와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 능력의 기를 수 있도록 하었다고 한다.

세 번째 개정 배경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여러 내적 문제를 개선하여 국어 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문제로 교육과정해설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요소 중심의 교육 내용 선정’, ‘실제와 내용 간 내용 간의 분절성’,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관심 부족’,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 부족’,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정보의 부족’의 6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 5~7).

3) 교육인적자원부(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인적자원부

이러한 배경은 개정 교육과정이 ‘담화의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의 지향’,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게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 11~14). 이 여기에 나타나는 ‘담화’, ‘통합성’, ‘맥락’, ‘매체 환경’ 등의 개념은 개정 교육과정의 대략적인 특징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정 교육과정은 실제로 소통되는 담화와 글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제 소통되는 언어활동을 중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이라 명명하기도 한다.<sup>4)</sup> 이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음 두 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 내용 체계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여준다.

<제7차 국어과교육과정의 쓰기 내용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기의 본질</li> <li>-필요성</li> <li>-목 적</li> <li>-개 념</li> <li>-방 법</li> <li>-상 황</li> <li>-특 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기의 원리</li> <li>-글씨 쓰기</li> <li>-내용 생성</li> <li>-내용 조직</li> <li>-표현</li> <li>-고쳐쓰기</li> <li>-컴퓨터로 글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기의 태도</li> <li>-동기</li> <li>-흥미</li> <li>-습관</li> <li>-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기의 실제</li> <li>-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li> <li>-정서 표현의 글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득하는 글 쓰기</li> <li>친교의 글 쓰기</li> </ul>

4) 김정우(2007 : 109~123)는 이런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텍스트 수용·생산 중심 교육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외에도 개정의 배경과 중점 사항들을 반영한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성취 기준형 교육과정’,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제공 지향’, ‘매체 교육 관련 내용 신설’,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자율적 탄력적 운용의 폭 확장’, ‘정의적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변화’, ‘맥락 관련 교육 내용 강화’, ‘영역 및 텍스트 분류 범주의 명칭 변화’ 등의 9가지로 밝힌다.

&lt;2007 개정 교육과정의 쓰기 내용 체계&gt;

쓰기의 실제		-설득하는 글 쓰기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정서 표현의 글 쓰기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쓰기			
지 식		기 능	
•소통의 본질		•내용 생성	
•글의 특성		•내용 조직	
•매체 특성		•표현과 고쳐 쓰기	
맥 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 두 표를 비교해 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본질’, ‘원리’, ‘태도’와 같은 학습 내용을 배워 실제 활동에 적용해보는 것이 주된 교육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상적인 학습 내용보다는 ‘실제 (담화 혹은 글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먼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실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 ‘맥락’의 요소가 뒤따르고 있다.

언어 교육의 목표는 언어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언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내용에 대한 수많은 비판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지식 축적보다도 지식의 활용을 우선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실제 행할 수 없는 지식은 결국 쓸모없는 지식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내용을 성취하기 위한 내용 요소로서 ‘지식’과 ‘기능’과 ‘맥락’이 자리 잡게 된다.

이를 7학년 쓰기 영역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표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7학년 쓰기 영역의 내용이다.

&lt;2007 개정 교육과정의 7학년 쓰기 영역 내용&gt;

글의 수준과 범위	
-원리나 현상을 설명하는 글 -교과 학습 시간에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쓴 간단한 보고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하는 글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수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문의 특성,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li> <li>•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선정하기</li> <li>• 통일성 있게 내용 정리하고 표현하기</li> <li>•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li> </ul>
(2)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의 목적, 특성, 구성 요소 이해하기</li> <li>• 사실, 자료, 생각을 기록하며 관찰·조사·실험하기</li> <li>• 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li> <li>• 관찰·조사·실험 및 보고의 윤리 지키기</li> </ul>
(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li> <li>•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li> <li>• 간결하고 명확하며 진지하게 표현하기</li> <li>• 건의하는 글이 소통되는 일반적인 맥락 이해하기</li> </ul>
(4)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려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기</li> <li>•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표현 전략 이해하기</li> <li>• 비유나 강조 등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쓰기</li> <li>•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과 상투적인 표현을 찾아 고쳐 쓰기</li> </ul>
(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필의 내용적·형식적 특성 이해하기</li> <li>• 생활 체험에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선정하기</li> <li>• 개인적인 생활 체험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기</li> <li>• 생활 체험을 공유하지 못한 독자 고려하기</li> </ul>

이 표를 보면 7학년에서 쓰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글(텍스트))은 ‘원리나 현상을 설명하는 글’, ‘교과 학습 시간에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쓴 간단한 보고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

- 5) 구체적인 맥락에서 언어가 사용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글보다는 ‘텍스트’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 이 ‘텍스트’는 ‘담화’와 짝을 이루어 문어(文語)와 구어(口語)를 의미하기도 쉽다.

하는 글’,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수필’이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교육 내용에서 구체적인 글이나 담화의 유형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7학년의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sup>6)</sup>은 이런 글들을 실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글들을 쓸 수 있다면 7학년 수준의 쓰기 능력을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기 교수 학습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내용 요소인데 구체적으로는 해당 글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지식과 기능, 맥락이다. 실제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과정 활용되는 내용 요소로서 지식, 기능, 맥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쓰기 성취 기준의 달성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내용 요소의 다양함을 이해하기 위해 7학년의 여러 성취 기준 중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먼저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려면 필자 혹은 이 성취 기준을 학습 하는 학습자는 ‘설명문’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설명문’이 다른 유형의 글들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런 글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면 ‘설명문’과 구별되는 ‘논설문’, ‘수필’ 등에 대해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또 ‘설명문’이 한두 가지 고정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설명문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설명문’ 개념의 이해에서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개념의 이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지식<sup>7)</sup>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의 문제가 교수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

6) 성취 기준은 교수 학습의 결과로 기대되는 언어 활동의 수준을 의미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을 ① 담화 또는 글의 유형+② 주요 내용 요소(지식, 기능, 맥락)+③ 행동(분석, 해석, 평가, 조사 등)을 결합하여 진술한 것으로 개별적인 지식, 기능, 맥락보다는 한편이 담화 또는 글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에 맞추어 기술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23).

7) 이 지식은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모두에 해당한다.



로 대두된다. 안다고 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해하고 숙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절차와 과정이 동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맥락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 글을 쓴다는 것은 글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을 상대와 글을 쓰는 나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 요구된다. 이런 관계 설정에 관여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인지적, 정의적 맥락들이다. 이것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코드들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하나의 성취 기준을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여러 내용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활동 자체가 고등의 사고 과정인 것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정된 수업 시간 안에 하나의 성취 기준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 요소를 교수 학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기능, 맥락 중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를 선정하여 내용 요소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 요소의 예는 해당 성취 기준의 교수 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소통되는 담화와 글을 중시하는 개정 교육과정이 다루는 쓰기 영역의 내용은 구체적인 글을 쓰기 위한 지식, 기능, 맥락의 매우 다양한 내용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적절한 글을 쓰는 것이 된다. 이는 쓰기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총체적으로 글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II. 보고서 쓰기에 나타난 쓰기 교육 내용

앞에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담화 혹은 글의 소통을 지향

하는 국어 교육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소통되는 실제적인 글에 대한 이해와 그런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쓰기 교육의 본질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이 다루고 있는 쓰기 성취 기준 중에서 제시된 내용 요소 위주로 쓰기를 다룰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 본 7학년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 중에서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쓴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 성취 기준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성취 기준이 다루고 있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내용 요소의 특수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쓰기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과된 쓰기 학습 경험 다시 말해 쓰기 과제들은 대체로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내용을 생성, 계획하고 이를 쓴 후 고쳐 쓰고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혹 쓰기 수업을 위해 수업 외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대체로 간단한 사전 조사 정도였다. 쓰기 수업 시간에는 가능한 그 짧은 시간 안에 쓰기 활동이 종결될 수 있도록 쓰기 활동은 분절되고 단순하게 변형되었다. 또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쓰기 기능을 훈련하는 과제가 주로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생활 국어’ 교과서의 쓰기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학교 생활 국어 1-1’ 교과서 1단원의 학습 목표, 소단원들의 주요 학습 과제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 단원은 내용 생성 단계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내용 생성’을 다루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생활국어’ 교과서의 쓰기 단원의 예>

대단원	학습 목표	소단원	주요 쓰기 과제
1. 생각과 표현	*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1)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	—경험담 읽고 창의적인 생각 이해하기 —제목붙이기 —비유적으로 창의적인 표현하기
	*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다.	(2)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 연습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 —제시된 활동하고 그 활동 활용한 쓰기 연습
		보충 심화	—제시된 활동하고 그를 활용하여 글쓰기

이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단원은 실제 글 한편을 쓰는 전체 과정이 아니라 내용 생성의 단계만을 다루고 있다.<sup>8)</sup> 따라서 이 단원에서 제공하는 쓰기 학습 경험이 구체적인 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또 구체적인 글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원의 소단원 제목들과 주요 학습 과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단원은 주로 내용 생성 기법을 소개하고 그 기법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다음은 이 단원의 쓰기 과제 몇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각 소단원과 보충 심화에 제시되는 대표적인 과제 형식으로 이 형식은 이 단원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7학년 '생활국어' 교과서의 쓰기 과제 예>

가. 소단원 (1)의 활동

활동 1. 다음 글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경험담이다. 이 글을 읽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

나. 소단원 (2)의 활동

활동 1. 같이 □ 안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또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써보자.

<보기>

교복은 체중계이다.

왜냐하면, 교복이 헐렁해지면 몸무게가 줄어든 것이고 교복이 꽉 끼면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8) 이 단원 이후의 단원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내용 생성 이후의 쓰기 단계를 다루고 있다.

쓰기 단계	대단원	소단원
내용 수집	3. 정보 수집하기	(1) 정보 수집 방법
		(2) 정보 수집 연습
내용 선정	5. 내용 선정하기	(1) 내용 선정 방법
		(2) 내용 선정 연습
내용 수정	7. 고쳐 쓰기	(1) 고쳐 쓰기의 필요성과 방법
		(2) 고쳐 쓰기 연습

1. 우정은 \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  
 \_\_\_\_\_ 때문이다.

다. 보충 심화

4. 같은 이야기라도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쓴 글을 읽고 ‘심청전’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써보자.

현행 교과서 체제에서 ‘생활국어’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가 ‘연습 책’ 형태로 되어 있다. ‘생활 국어’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만으로도 어려움 없이 다룰 수 있는 간단한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이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은 이 연습 책에 제시된 과제를 주어진 수업 시간에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방식의 쓰기 교수 학습은 주어진 과제를 충분히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 해봄으로써 과제 형태의 활용 연습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 교사와 함께 과제로 제시된 예문을 분석하는 활동은 글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하고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밀도 있다면 글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도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연습하는 글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글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글 중에는 이 연구가 다루려고 하는 ‘보고서’처럼 실제 글의 내용 마련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그 글의 형식 등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글도 있기 때문이다.<sup>9)</sup>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글이 실제 현실에서 소통되는 글이 아닌 것은 수업이라는 맥락 때문이다. 수업이라는 맥락은 먼저 글의 분량과 내용을 한정한다.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분량과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국어 수업 시간은 한번에 45분 정도이

9) 이런 예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다른 쓰기 성취 기준에서도 간간히 나타난다. 7학년의 건의하기, 위로하는 글쓰기 등에서도 글 자체의 형식적 특성을 다루는 것 외에 그 글이 실제로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등의 소통의 문제를 얼마나 또 어느 정도로 다루어야 할지 모호하다.

며 1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5시간이 최대이다. 이 시간 안에서 학생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학습 목표에 근접할 수 있게 하는 쓰기 과제여야 하기 때문에 교재에 제시되는 쓰기는 실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수업이라는 맥락은 학생들이 다루는 글의 내용을 한정한다.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는 ‘국정’의 형식이었다. 따라서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한 권의 교과서로서 교육 안팎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학생들 모두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교과서에 실리는 글은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구체적인 맥락을 지니지 않는 글을 무미건조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실제성 역시 떨어지게 된다.

구체적인 장면에서 읽고 쓰는 글은 맥락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비슷한 장르의 글이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그 글의 내용과 형식 역시 달라진다. 설명문이라고 해도 국어 수업 시간에 쓰는 설명문과 과학 수업 시간에 쓰는 설명문이 같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 역시 과학 수업 시간에 쓰게 되는 보고서와 사회 수업 시간에 쓰는 보고서가 같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맥락에서 생산 수용될 수 있는 글과 관련된 글 쓰기 다시 말해 실제적 쓰기 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의 교수 학습의 실현은 이런 국어 수업이라는 맥락이 지나는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실제로 소통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제공할 수 있는지의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음은 앞에서 논의했었던 7학년 쓰기 영역의 ‘보고서 쓰기’에 대한 교육과정 해설 부분이다. 이 해설을 통해 ‘보고서 쓰기’에 관련된 내용 요소의 문제를 살펴보자.

## &lt;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쓰-(2)】 해설&gt;

【7-쓰-(2)】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보고서의 목적, 특성,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사실, 자료, 생각을 기록하며 관찰·조사·실험하기
- 절차와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 관찰·조사·실험 및 보고의 윤리 지키기

이 성취 기준은 학교나 직업 세계에서 연구나 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필요한 실험, 조사, 분석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고서를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하며, 특히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보고서 작성에서 윤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윤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고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조사, 관찰, 실험, 연구 등의 과정이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 보고서는 대체로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즉 보고서에 제시되는 내용 및 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술 방식도 정확하고 명료하며 간결해야 한다. 학습자가 관찰·조사·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윤리를 지키도록 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지 않기, 연구에 참여한 사람을 보호하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 등을 강조하도록 한다.

【글의 수준과 범위】 교과 학습 시간에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쓴 간단한 보고서

각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작가 조사 보고서, 과학 실험 보고서, 지역 사회 탐구 보고서, 청소년들의 여가 활용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형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고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개인별, 모둠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구자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한다.

이 해설은 ‘보고서 쓰기’가 한두 시간의 한정된 국어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필요한 실험, 조사, 분석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쓰기 수업에 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국어과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 활동은 실제로 사회나 과학과 같은 다른 교과 수업의 핵심적인 교수 학습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 교과 수업의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 ‘보고서’가 국어과의 쓰기 관습보다는 ‘각 교과 학습과 관련’한 보고서 쓰기의 요구와 관습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성취 기준의 달성에 요구되는 학습 경험은 타 교과의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 교과의 요구와 쓰기 관습에 맞는 보고서 형식의 글로 정리하는 것이 된다. 이는 국어 교육이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다루는 도구에 대한 교육이라는 도구 교과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어 수업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해설에는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의 형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고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보고서 쓰기를 다루는 것은 보고서의 형식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고서에 쓸 구체적인 내용과도 동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맥락에서 소통되는 보고서 쓰기 활동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쓰기 교육 내용의 문제들을 보고서 쓰기의 전형적인 장면이 자주 벌어지는 과학과 교수 학습 장면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과학과 교수 학습 과정에서 보고서 쓰기 활동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 쓰기 활동이다. 정혁 등(2004 : 1009~1010)에서는 학교 과학 수업에서 일어나는 쓰기 유형의 92%가 소통적(transactional) 쓰기라고 한다. 소통적 쓰기란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글을 사실에 입각하여 쓰는 형식으로 실험 보고서 역시 이런 소통적 쓰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과학 수업 시간에 과학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우선 교사가 미리 준비한 보고서 양식이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 실험을 수행한 후, 배포된 보고서 양식에 그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실험 보고서를 쓰는 것은 실제 실험을 한 후 이루어지는 마무리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보고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 한다.<sup>10)</sup> 이 요소들은 과학 실험 자체를 정리하기 위한 항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과학 탐구하는 과정 자체이기도 하다. 여기에 제시된 요소들을 논의하는 경험을 통해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 실험하는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 교육이 지향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보고서를 쓸 때 과학과의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형성된 쓰기 관습을 보여준다.

1. 제목
2. 실험 날짜
3. 실험자
4. 실험 목표
5. 준비물
6. 예비 학습
7. 실험 과정 및 결과 정리
8. 결과 분석 및 토의 사항
9. 실험 상 문제점 및 오차의 원인
10. 결론

과학 교과에서 실험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활동이라면 학생들은 보고서 쓰기의 관습에 매우 익숙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자주 하는 익숙한 활동이므로 학생들은 보고서를 과학과의 요구와 관습에 맞추어 어려움 없이 쉽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쓰는 활동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면 교사들은 당연히 학생들은 보고서를 잘 쓰도록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교과의 관습에 따른 보고서 양식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을 지

10) 이 요소들은 연구자가 에듀넷, 전국과학교사 모임 등에서 과학 수업에 활용하는 여러 실험 교육 관련 자료들에서 추출한 것이다.



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하고 과학 교육의 가치를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의 형식에 맞추어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고서 쓰기 지도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다음은 과학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실험 보고서의 예이다. 이 실험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는 앞에서 제시한 실험 보고서의 주요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요 항목 외에 그 항목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보고서를 쓴다기보다 보고서 형식의 질문지에 답을 쓰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앞에서 보고서 쓰기는 해당 교과와 요구와 관습의 결과라고 하였다. 보고서 쓰기를 통해 과학을 배우는 이유를 이해하고 과학 교육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들은 보고서 양식을 제시 하더라도 내용 없이 틀만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11) 대부분의 과학 수업에서 교사들은 이 예와 같이 실험 결과만 기록하면 되는 형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는 보고서를 쓰는 행위보다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이런 보고서 쓰기라면 학생들은 보고서 쓰기를 위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따라서 이런 보고서 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언어 표현을 위한 사고는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과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실험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 기록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쓰는 것은 중시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이런 보고서 쓰기의 특성과 관련하여 보고서 쓰기의 내용 요소로 쓰기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쓰기 행위의 정의적인 요소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쓰기 윤리와 관련한 연구로는 박영민 외(2007), 이인재(200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학년 과학 실험 보고서의 예><sup>12)</sup>

탐구명	호흡열의 발생																						
일시	200년월일교시	1학년 반 번 조 성명 : ( )																					
탐구목표	콩의 발아실험을 통하여 호흡과 생활 에너지의 생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썩은 콩, 삶은 콩, 보온병, 온도계, 고무마개, 스탠드, 클램프																						
유의사항	온도계가 콩과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보온병을 거꾸로 세운다.																						
탐구방법	<p>1. 2개의 보온병에 썩은 콩과 삶은 콩 50개씩을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온도계를 꽂은 고무마개로 보온병 입구를 막는다.</p> <p>2. 보온병을 거꾸로 세워 놓고 5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아래 표에 기록하자.</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9-6 콩의 호흡열 측정</p> </div>																						
탐구결과 및 토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시작(0분)</th> <th style="width: 15%;">5분</th> <th style="width: 15%;">10분</th> <th style="width: 15%;">15분</th> <th style="width: 15%;">20분</th> </tr> <tr> <td>(가) 썩은 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나) 삶은 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1. 보온병에 물을 조금 넣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p> <p>2. 5분 간격으로 보온병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3. 삶은 콩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4. 삶은 콩과 비교해 볼 때 썩은 콩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자.</p> <p>5. 썩은 콩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사람의 몸속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화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p>					구분	시작(0분)	5분	10분	15분	20분	(가) 썩은 콩						(나) 삶은 콩					
구분	시작(0분)	5분	10분	15분	20분																		
(가) 썩은 콩																							
(나) 삶은 콩																							

- 12) 중학교 1학년 과학 ‘호흡과 배설’ 단원에서 ‘콩의 호흡에 관한 실험보고서’로 에듀넷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8년 10월 27일 검색하였으며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edunet4u.net/tsearch/lessonDataGroupList.do?org\\_cd=SVCZ000001&data\\_no=20048&seq\\_no=1&wsActivity=0&acUsed=0&mode=&channel=teacher&category=](http://www.edunet4u.net/tsearch/lessonDataGroupList.do?org_cd=SVCZ000001&data_no=20048&seq_no=1&wsActivity=0&acUsed=0&mode=&channel=teacher&category=)

실제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보고서 쓰기가 이런 양상이 라면 국어과의 쓰기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보고서 쓰기의 교육을 위한 학습 경험 다시 말해 보고서 쓰기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어 수업에서 지도하려는 보고서의 특성 및 보고서 쓰는 방법의 핵심과 과학 수업에서 지도하는 보고서 쓰기의 핵심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쓰기 수업 시간에 보고서 쓰기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쓰기의 소통 맥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어긋남은 결국 보고서 쓰기 수업이 제공하는 학습 경험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개념, 필수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교육과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고서 쓰기 활동을 찾는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과학탐구발표대회 등에 제출하는 보고서 쓰기 활동을 들 수 있다.<sup>13)</sup> 이런 탐구 발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생들이 직접 실험, 조사, 분석의 주제를 결정하고 해당 과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를 실제 발표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보고서 쓰기의 실제적인 맥락을 그대로 체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회의 보고서 심사 기준과 심사 관점을 살펴보면 보고서를 쓰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과정 해설에서의 보고서 쓰기의 내용과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설명과도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나오며

지금까지 ‘보고서 쓰기’를 중심으로 실제 맥락에서의 언어적 소통을

---

y=&groupcategory=&search\_re=&recommand=&keyword=&searchPlace=1&searchWord=%BD%C7%C7%E8%BA%B8%B0%ED%BC%AD&groups=lessonData

13)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에 23회 대회를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이 주관하여 개최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2008년도 제23회 서울학생탐구발표대회 개최 요강, <http://www.ssp.re.kr/> 참조)

중시한다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교육 내용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맥락 중심, 소통 중심, 텍스트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수 학습의 내용은 학습자의 실제적 언어활동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곧 개정 교육과정이 구체적인 맥락 하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서 쓰기’와 같이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몇몇 쓰기 성취 기준들은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학습 경험과 그 성취 내용을 무엇으로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고서 쓰기’라는 쓰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단순히 보고서의 목적, 특성,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사실, 자료, 생각의 기록, 관찰, 조사, 실험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고서를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야 하는 학습 경험은 이 경험이 쓰기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경험인지, 또 이런 쓰기 학습 경험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지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 문제를 실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보고서 쓰기 활동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보고서 쓰기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에서 다루는 보고서 쓰기는 과학 교과에서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보고서 쓰기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학생 과학 탐구 발표 대회와 같은 소수의 훈련받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동에서 필요한 쓰기 활동인 것이다. 반면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 경험하는 보고서 쓰기에서는 학습자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보고서 쓰기 활동은 언어 표현을 위한 사고는 물론 과학적 사고 또는 문제 해결적 사고를 요구하는 쓰기 활동과도 거리가 있다. 이런 방식의 보고서 쓰기는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의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기 교수 학습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교육과정 해설의 설명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 쓰기’가 실제 맥락에 부합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글쓰기 경험, 학습할 만한 가치 있는 경험이 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과제가 되려면 ‘보고서 쓰기’는 국어과 수업이라는 한정된 맥락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과학, 사회 등의 내용교과와의 통합 활동이나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주제 중심 활동 속에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통합적 언어활동은 국어 교육의 읽기나 쓰기 분야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또 활발하게 제기되는 주제이다. 실제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 능력의 신장이라는 언어 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 이해와 표현의 통합, 내용과 형식의 통합은 당연한 귀결이다.<sup>14)</sup>

굳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아니어도 이 연구가 문제 삼은 쓰기 과제와 실제적인 쓰기 활동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항상 있어 왔다. 실제 학생들의 쓰기 능력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글쓰기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쓰기 교수 학습에서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의 경험 역시 실제 소통되는 언어활동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이 특히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이라는 실제 언어활동을 교수 학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에 연결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가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쓰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쓰기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학습 경험의 문제는 국어 교육의 실제 장면과 연관하여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겠다.\*

14)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언어활동의 통합성을 지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 104~121). 그런데 이런 통합 지향의 특히 내용과 형식의 통합을 지향하는 해결책이 실현될 수 있는 장면은 현재의 학교 현실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하는 것 역시 분명히 알 수 없다. 통합 교육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여전히 통합 교육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드물게 실험적으로 실현될 뿐이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은 2008. 10. 31. 투고되었으며, 2008. 11. 3. 심사가 시작되어 2008.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a),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est.go.kr>
- 교육인적자원부(2007b),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검정기준,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est.go.kr>
- 교육인적자원(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 김도남(2007), 국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 내용요소 선정 기준 탐색, 새국어교육 85, 새국어교육학회, 61-89.
- 김명순(2007), 내용 영역 문식력의 특징과 지도 방향, 새국어교육 75, 새국어교육학회, 92-120.
- 김정숙(2007),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술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35-54.
- 김정우(2007),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성,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101-129.
- 김정자(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쓰기> 영역 내용 검토, 작문연구3, 작문교육학회, 169-197.
- 박수자(2005), 교과 독서의 본질과 과제, 독서연구 14, 독서교육학회, 35-54.
- 박영목(2006), 검정도서로서의 국어 교과서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5-24.
- 박영민, 최숙기(2008), 중학생 쓰기 윤리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37, 청람어문교육학회, 44-79.
- 박정진(2005), 국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국어교육 118, 한국어교육학회, 101-125.
- 손영애(2008), 새로운 국어 교과서 구성 방안,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51-281.
- 염은열(2006), 쓰기 교과서의 ‘활동’ 구성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27-50.
- 이인재(2007),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 교육, 작문연구 6, 130-159, 작문교육학회.
- 이인제 외(2004), 국어과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 CRC 2004-4-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혁, 정용재, 송진웅(2004), 빛을 주제로 한 11학년 학생의 과제 유형에 따른 글쓰기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5, 한국과학교육학회, 1008-1017.
- 정혜승(2004),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국어과 교재 구성의 원리, 어문연구 3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9-403.
- 최영환(2003), 효율적인 국어과 교재 구성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16, 국어교육학회, 533-558.

<초록>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 쓰기 영역  
‘보고서 쓰기’의 교재화를 중심으로-

김경주

이 연구는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교재화하는 과정에서 쓰기 교육 내용 선정에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보고서 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맥락 중심, 소통 중심, 텍스트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수 학습의 내용은 학습자의 실제 언어활동을 바탕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고서 쓰기’와 같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몇몇 쓰기 성취 기준들은 적절한 쓰기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본고는 이를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보고서 쓰기 활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고서 쓰기’의 교육 내용은 쓰기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경험을 넘어서고 있었으며, 이 자체가 학생들의 일상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었다. 이런 ‘보고서 쓰기’와 같은 교육 내용이 실제 맥락에 부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쓰기 교육 내용이 되려면 타 교과와의 통합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주제 중심 활동이 필요하였다. 이는 타교과 수업과 쓰기 수업이 결합되는 것으로 국어 수업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이 된다.

**【핵심어】**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쓰기, 쓰기 교육, 쓰기 교육 내용, 텍스트, 맥락, 보고서, 과학 교육

<Abstract>

A Study of the Essential Education Elements on Writing Education

Kim, Kyoung-joo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of selection education elements in making teaching materials for the writing education. For this analysis, some factors of reporting process are investigated.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2007 Korean Language curriculum is laying emphasis on text reception and production in the practical context. And in this curriculum realization, the comprehension of the real text in the practical contexts is important. For example, the writing report requires the comprehension of the conceptions of the report and the contents reported. In Science education, the leaning of the science experiment reporting is the following of the science writing convention. But learning of the writing report in language classroom is not similar in the science classroom.

For the selection of the essential education elements in making teaching materials, it is preceding that the analysis of the text constitution factors in the practical contexts. Also it is necessary that integration of the diverse content areas and of the methods and contents.

**[Key words]** 2007 Korean Language curriculum, Writing, Writing education, type of text, context, report production, science education